

동성애와 역사

서구 성 혁명 역사
▶ 1차 성 혁명까지



● 민성길 교수

연세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로 재직하였고 250여 편의 논문을 저술하여 '국제 신경정신약물학회 선구자상'을 받았다. 대한정신약물학회 회장,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초대 이사장, 서울 은평병원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한국성과학연구협회 회장이다.



고대 그리스 로마시대

한국 같은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역사적으로 서구에서 일어났던 “성혁명” 같은 사건은 없었다. 서구 성 혁명적 사상이 들어올 때까지 한국의 성윤리는 서구의 중세의 그것과 비슷하였다. 지금 우리 사회는 서구의 성 혁명적 사상이 들어와 전통적 성윤리를 뒤흔들고 있다.

필자는 의사이다. 의학자는 올바른 성윤리라고 하기보다 “건강한 성”에 대해 말한다. 가장 보편적인 의학적 “건강”의 정의는 “병이 없는 상태”이다. 그럼 “건강한 성”은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필자는 에릭 에릭슨^{Erik Erikson 1902~1994}이라는 정신분석가가 그의 명저 『소아기와 사회^{Childhood and Society(1950)}』에 다음과 같이 쓴 것을 발견하였다: 남녀가, 불안을 동반하지 않는, 사랑의 관계에서, 성기 결합을 통해, 상호 오르가즘을 가지며, 자식을 낳아, 협력하여, 양육하는 것¹. 이러한 기술이 “건강한 성”을 말하는 것 아닌가 한다.

우리 사회에 이러한 “성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그동안 서구 사회에서 인간의 성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 그 역사를 알아야 한다.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²이란 의미에서 필자는 두 차례로 나누어 서구의 성혁명의 역사를 개관하고자 한다.

그리스 시대에는 온갖 행태의 섹스가 행해졌다. 매춘, 동성애, 소년애^{pederasty}, 최음제 사용, 섹정광^{nymphomania} 등이 공공연히 행해졌다. 매춘은 세금을 내는, 당당한 사업이기도 했다. 그런데 이런 성의 향락은 남자에게만 허용되었다. 여자는 남자의 소유물로 간주되었고, 그들의 욕구는 무시되었다. 여자들은 성을 즐길 기회가 없어 자위나 아마도 동성애로 만족해야 했다.

로마 시대 때도 그리스 시대와 비슷했다. 향락주의가 번성하였다. 매춘이 성행하고 소년애도 유행하여 인구 감소를 걱정할 지경이었다. 여자는 여전히 무시되고 억압받았다. 그래도 바커스 축제 때만큼은 남자처럼 성해방을 즐길 수 있었다.

로마제국의 멸망에는 이러한 성적 타락, 특히 동성애가 한몫을 했다는 비판¹이 많이 있다.

▼고대 그리스 시대 소년애(pederasty)



1) Erik Erikson, *Childhood and Society*, Norton, NY, 1950.

2) [편집자주]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 옛 것을 익히어 새 것을 안다는 뜻. (네이버 한자사전).

1) Nick Squires, Fall of Roman Empire caused by 'contagion of homosexuality', *Telegraph* April 8, 2011, <https://www.telegraph.co.uk/news/worldnews/europe/italy/8438210/Fall-of-Roman-Empire-caused-by-contagion-of-homosexuality.html>

중세

서기 400-1000년 사이 중세 기독교 시대에서는, 로마멸망의 원인에 대한 반동형성 때문인지, **기독교 도덕성이 강력한 지배력을 행사해 왔다.** 육체적 욕망에 대해 엄격한 통제가 가해졌다. 성욕과 성행위는 “원죄”와 관련되었다. 남녀의 금욕적이고 경건한 생활이 찬양되었다. 오로지 결혼 내에서 생식을 위한 섹스만 인정되었다. 피임도 쾌락을 위한 것이라고 금지되었다. 자위, 항문성교, 동성애, 근친간 등은 모두 죄로 간주되어 처벌받았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성적 통제가 얼마나 효력이 있었는지는 의문시된다. 기독교 아닌 다른 성 억제 요소도 있기는 했다. 1,000년에 걸친 중세 동안 빈곤, 질병, 더러움, 역겨운 냄새 등도 성욕 억제에 한몫했다고 한다.

르네상스

14세기부터 17세기 사이 산업, 과학, 그리고 중산층의 발달과 더불어, 르네상스 시대가 왔다. **북이탈리아 도시의 지식인들이 동방의 다양한 문물을 접하면서, 잊혀져 있던 그리스시대에 숭배되고 즐겨졌던 사교방식과 “나체” 예술이 다시 등장하였다.** 인간을 중시하고,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고, 인간의 현재적 욕망과 쾌락을 귀중하게 생각하는 르네상스 휴머니즘이 발달하였다. 이는 지적 자유와 “개인의 해방”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르네상스 인문주의자들은 카톨릭교회를 위해 자신의 학문을 사용하였으나, 카톨릭교회는 이들 사상을 경계하였다. 그들 상당수는 나중의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에 합류하였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의 성생활은 여전히 엄격히 통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한편에서는 매춘이 성행하였다. **16세기 유럽에 남녀 모두에 매독이 창궐**하였다. 이는 교회가 강요한 만큼 실제로 사람들이 신앙에 근거한 순결을 지키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동성애도 예술가 같은 특정인들에게 은밀히 관용되었다. 그러나 공공적으로는 1533년 Buggery Act(남자 동성애를 처벌하는 법)가 채택되어 동성애자는 사형에 처해지도록 했으나 실제 시행된 적은 드물었다고 한다.

2) 계몽주의의 철학(신학)은 세계를 창조한 하나의 신을 인정하지만, 그 신은 인간과 세계를 초월하여 존재하며, 계시나 기적으로 세상에 간섭하는 인격적 신이 아니다. 한편 인간은 이성(理性)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신의 존재나 우주의 법칙을 이성으로 알 수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3) Corydon Ireland, On Darwin and gender, The Harvard Gazette, July 7, 2011, <https://news.harvard.edu/gazette/story/2011/07/on-darwin-and-gender/>

4) Richard Weikart, Darwinism and the Sexual Revolution, Evolution News, September 8, 2016, https://evolutionnews.org/2016/09/darwinism_and_t/

계몽사상

르네상스 휴머니즘은 17세기에 계몽사상으로 발전하였다. **계몽사상은 기독교를 비판하면서 무신론 내지 이신론(神論)², deism을 제시하였다.** 계몽주의 사상은 18세기 말의 프랑스 부르주아 혁명의 사상적 근거를 제공하였고, 현대 무신론으로 발전하였다. 계몽주의는 성에 대해 직접 말하지 않았으나, 계몽주의 작가들은(전통적 기독교 성윤리에 반하는) 노골적인 성을 묘사한 책을 씀으로 최소한 섹스에 대한 기독교적 죄의식을 공공연하게 무시하기 시작하였다. 성 자유를 향한 공개적인 발걸음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몽주의자들은 여자의 공간은 가정 내에 있다고 굳게 믿었다. 가족과 사회는 여전히 가부장적이었고, 여성은 억압받았다. 휴머니즘이나 계몽은 남자들만의 일이었다.

말서스 · 다윈 · 우생학

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말서스**(Thomas Robert Malthus 1766-1834)는 인구가 식량 생산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에 조만간 식량이 모자라게 될 것이기에, 식량을 증산하던지 먹는 입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이왕 인간의 수를 줄이자면, 인간의 질은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줄이자는 생각이 나타났다. 결국 **“적게 낳아 잘 기르자**”라는 산아제한이라는 방식이 고안되었다. 산아제한은 결과적으로 피임과 낙태를 쉽게 하도록 만들었다. 이로써 성해방과 쾌락 추구하고 생명경시라는 기독교에 반하는 가치관이 온 세상에 퍼트려지기 시작하였다.

말서스에 일부 영향을 받은 **다윈**(Charles Darwin, 1809-1882)은 진화론과 성선택 이론을 세상에 내어 놓아, 기독교 세계에 충격을 주었다. 1880년대에는 다윈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우생학 운동이 나타났고 **“열등한 인간에 대한 낙태를 정당화**하는 움직임으로 발달하였다. 또한 다윈의 진화론과 성선택 이론은 현대 성혁명가들이 주장하는 젠더의 다양성이나, 동성애의 정상화 이론에 반대된다. 다윈 자신은 당시의 젠더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 즉 남자는 크고 강하고, 창조적이고 용감하다. 여자의 직관적 능력은 하급인종의 특징으로 여자는 깊은 사고, 이성, 또는 상상을 요하는 영역에서 결핍이 있다고 하였다³. 다윈의 “적자생존” 개념에서 자본주의, 식민주의, 제국주의 등에서부터, “상호의존”의 개념에 근거한 평화주의, 사회주의, 무정부주의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데올로기가 발달하였다. 진화론에 근거하여 **스펜서**(Herbert Spencer, 1820-1903)가 사회적 다윈주의(Social Darwinism)를 제시했는데, 이는 인종차별주의나 파시즘, 나치즘을 옹호하는 근거와 신자유주의의 경제적 약육강식 논리에 사용되기도 하였다. **근래 진화심리학자들이 불륜이나 강간 같은 성행동이 진화의 결과로 유전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에겐 전혀 실증적 근거가 없다⁴.**

부르주아 혁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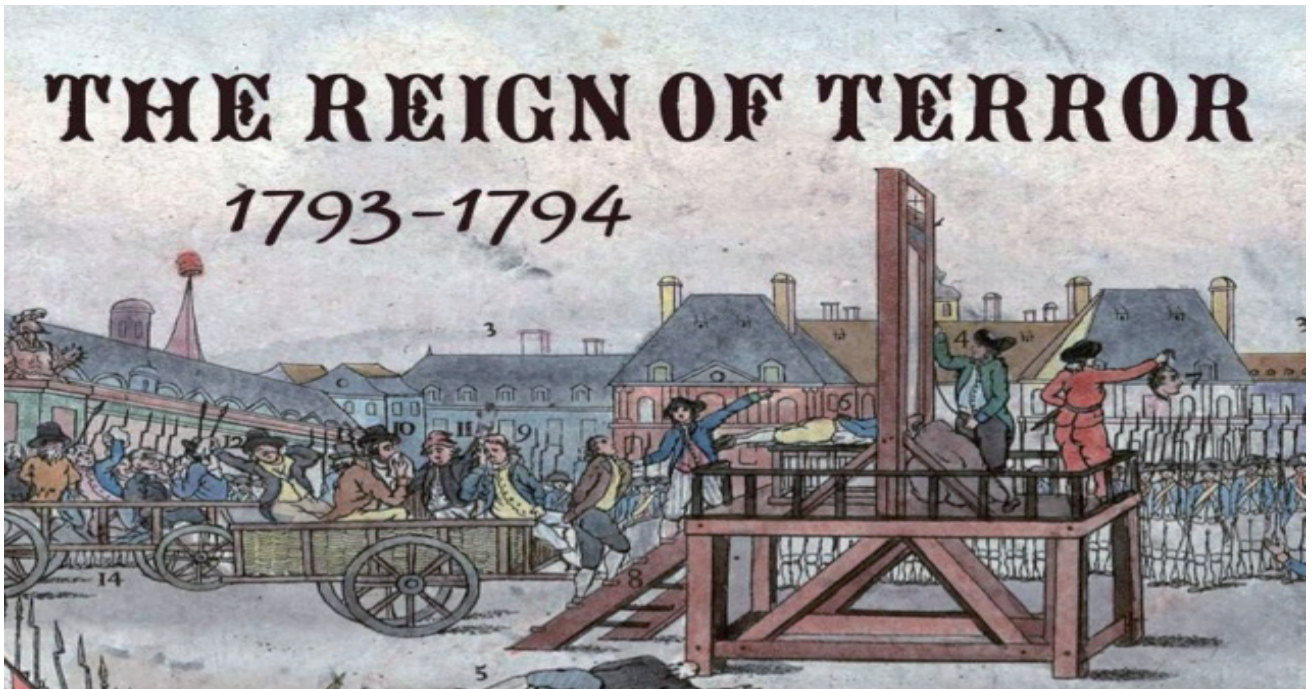
18세기에 모든 서구 국가에서 자본가 계급(부르주아)이 부상하고 있었다. 그들은 계몽사상에 영향을 받아 봉건제 또는 절대군주제를 타도하고 시민 계급(부르주아)이 지배하는 법률상 자유와 평등의 사회를 건설하려 하였다. 이러한 정치적·사회적 변혁을 **시민혁명**(市民革命)이라고도 부른다. 대표적으로 1688년의 **영국의 명예혁명**(Glorious Revolution), 1776년 **미국 독립 혁명**(The American Revolution), 그리고 1789-1794년의 **프랑스 혁명**(French Revolution)이 있다. 정치사회적 “혁명”에 조만간 성혁명이 뒤따를 참이었다.

프랑스 혁명은 절대 왕정에 대항하여 도시민(부르주아)들과 농민이 봉기하여 폭력으로 2년간에 걸쳐 절대왕정과 봉건체제를 무너뜨리고,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을 공포한 사건이었다. 사람들은 자유, 평등, 박애 (liberty, equality, fraternity) 등과 같은 아름다운 말들에 매혹되었다. 그러나 대가는 가혹하였다. 혁명은 실제로 국가차원의 폭력 테러였다. 혁명가들은 카톨릭교회의 재산을 몰수하고 수많은 성직자들을 추방하거나 처형하였다. 대신 그들은 '자율적 이성'을 여신으로 격상시켜, 그 이성을 섬기는 컬트를 국교로 만들어 성당에서 시행하였다. 기요틴에서 무수한 머리가 잘려나가는 공포와 함께 혁명의 이상은 사라져 갔다. 혁명의 지도자들도 자신들의 동료에 의해 기요틴으로 처형당하였다. 혁명의 '여신'이 해방을 이끌었지만 성 해방은 일어나지 않았다. 여성들은 평등권을 누리지 못했다. 그러나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라는 개념 또는 사람은 자유의지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성 해방의 씨도 뿌려졌다. 당시 바스티유 감옥에서 사드 (Marquis de Sade 1740-1814)는 상상 가능한 모든 성도착에 대한 것을 글로 표현하였던 것도 이 “자유”에 기초한 것이었다.

▼The Reign of Terror (French Revolution 1793-1794)

(<https://www.slideshare.net/tomrichey/the-reign-of-terror-french-revolution-17931794>)



근대 산업혁명

제1차 산업혁명은 18세기 중반부터 19세기 초반까지로, 영국에서 농업사회를 도시사회로 변모시켰다. 제2차 산업혁명은 1865년부터 1914년(1차 세계대전 발발)까지의 산업의 혁명적 변화로서, 영국 외에도 독일과 미국에서도 화학, 전기, 석유 및 철강 분야에서 기술혁신이 일어났다. 산업의 발달로 경제적으로 풍요해졌고, 전반적 과학과 의학이 발달하면서 공공보건이 발달하였다. 그에 따라 인구가 증가하였고 도시화가 진행되었다. 도시에서 사람들이 조밀하게 거주하면서, 사람끼리 더 자주 접촉하게 되었다. 성도 자연스럽게 자극되었고 자유스럽게 되었다. **19세기 중반부터** 중세부터 내려오던 성 억압이 경감되기 시작하였다. 대도시에 소비에 근거한 물질문명이 발달하였고, 향락산업이 번성하기 시작하였다. 쾌락을 향한 거대한 파도가 시작되었다. **이 시대는 서구사회에서 섹슈얼리티의 분수령이 된다.**

빅토리아 시대

프랑스혁명의 시대는 **빅토리아 시대**(Victorian Era 1837~1901)로 이어졌다. 이즈음 서구는 낭만주의 시대였다. 낭만적 연애시들이 나오면서 **“자유연애”(free love)**가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조금씩 성에 허용적 사회가 되어져 갔다. 그만큼 기독교의 성도덕도 훼손되어 갔다.

19세기 후반은 겉으로는 우아함에도 불구하고 성적으로 매우 부패한 위선의 시대였다⁵. 빅토리아 시대의 이미지는 “단추를 꽂 채운 엄격하고 우아한 사회적 매너와 천으로 감싼 책상다리”이다. 이는 그 시대 사람들은 하도 성에 엄격하여 책상 다리나 길고 딱딱한 것은 모두 성적으로 자극적이라 생각해서 천으로 감추려 했다는 조크다. 당시 영국에서 중산층 부인들은,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순수하고 안전하게 비치되어 있는 가구 같은 존재였다. 남편들은 부인에게 섹스는 월 1회로서 충분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면서도 남편들은 자유롭게 창가를 들락거렸다. 히스테리가 전형적인 여성의 질병이 되었다. (20세기 초 프로이트는 히스테리를 성적 불만 때문으로 보았다.)

매춘이 더욱 번성해져 갔다. 1839년 인구 2백만의 런던에 8만 명의 창녀가 있었다고 한다. 자연히 매독 같은 성병이 창궐하였

다. 당시 성병은 비도덕성에 대한 천벌이었다. 매춘은 ‘the great social evil’로 간주되었다. 깨끗한 처녀가 대단히 소망스러운 상품이 되었다. 성병이 무서워 사람들은 성욕을 억제하려 하였다. 따라서 자위가 안전한 섹스로 간주되고 이에 대해 집착하였다. 포르노 소설도 몰래 유행하였다. 1857년 **포르노를 막기 위한 법**이 제정되자 포르노는 지하로 들어갔다. 동성애도 성행하였다. 영국사회는 1885년부터 동성애자가 발각되면 2년 징역으로 처벌하였다.

데카당스(^Dcadence)는 **19세기 말**, 자본주의 사회의 물질적 풍요와 악과 위선 속에서 표준, 도덕, 위엄, 종교적 신앙 등에서 타락 상태를 의미한다. 엘리트 예술가들이 관능적인 자극이나 도취를 추구하는 퇴폐적인 사상을 상징주의적으로 또는 미학적으로 표현하였다. 보들레르, 말라르메, 오스카 와일드 등이 대표적 데카당스 작가들이다. 오스카 와일드는 동성애로 감옥에 갔다.

이 빅토리아 시대의 성적 혼란과 위선은 이후 오랫동안 큰 반향을 일으켰다. 1차 성혁명은 빅토리아 시대에 이미 싹트고 있었다.

Belle Époque ▶ 빅토리아 시대의 후반기는 유럽 대륙의 “Belle Époque(아름다운 시대)”⁶의 초반기와 겹친다. 이는 보불전쟁이 끝나던 1871년부터 1차 세계대전이 시작하는 1914년까지의 시기이다. 이 시대에 낙관주의, 경제적 번영, 식민지 경영의 정점, 평화, 기술과학의 발달, 문학, 미술, 음악, 연극 등 문화적 창조와 예술이 꽃피웠다. 이 시절의 퇴폐적 자본주의 문화는 새로이 등장하던 공산주의(마르크시즘)의 비판과 혁명의 대상이 되었다.



▲빅토리아 시대의 성 - 히스테리를 치료한다는 광고문

5) Violet Fenn, . Historical Sex: The Victorians disease, pornography and royal sex chairs, Metro 28 Jun 2017. <https://metro.co.uk/2017/06/28/violet-fenn-historical-sex-the-victorians-disease-pornography-and-royal-sex-chairs-6664768/>

6) 1차 세계대전의 끔찍함을 드러내기 위해 나중에 이 전쟁 이전의 좋았던 시기를 “Belle époque”라 명명하였다.

1차 세계 대전

전쟁은 사회 전체를 뒤집어 놓는다. 섹슈얼리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전쟁은 가족을 이산시키고, 가정과 전선에서 수많은 성적 문제를 야기한다. 더구나 규모가 큰 세계대전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다. 1차 세계대전은 그동안 유럽에서 누적되어 오던 남녀관계, 성도덕, 환락주의, 매춘, 성병 같은 누적된 “도덕적 타락” 문제들을 그대로 드러내고 대규모로 악화시켰다. 병사와 후방의 여성 모두에서 전통적 masculinity와 femininity 개념에 대 각변동을 가져왔다. 전쟁이 끝난 후 고향으로 돌아온 제대 군인들은 전쟁 때의 경험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다.

성병

전쟁은 젊은이들을 통제 밖으로 내몰아 도덕성을 상실하게 만들었다. 전쟁 동안 정부와 군대는 수백만의 성욕과 성병에 좌절된 남자와, 성욕에 굶주린 그리고 가난한 여자들의 문제에 대응하여야 했다. 실제로는 상황이 아주 나빴다. 병사들은 성적 문란을 보였다. 병사들은 휴가든, 다쳐서 병원후송으로 오든, 도시에 오게 되면 흔히 매춘부를 찾았다. 대규모로 매독과 임질 같은 성병이 창궐하였다. 성병은 군사의 사기 저하뿐 아니라 실제 전투력을 감퇴시켰고, 종족 유지를 걱정하게 만들었다. 이를 막기 위해 유럽 각국의 군대는 전선 바로 후방에 통제된 매음굴을 조직하고 매춘부들을 의학적으로 검사하였다. 독일에서는 병사에게 물어 성병을 옮긴 여자가 확인되면 처벌하였다.

대체로 젊은 병사들의 넘쳐나는 성욕은 인정하는 분위기였으나, 이를 이용하는 여성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고 비도덕적이라 비판받으며 중외의 대상이 되는 등 부정적인 대우를 받았다. 남자를 유혹에 빠트리는 창녀는 국가에 위기를 조성한다고 보았다. 심지어 영국에서는 매춘부뿐 아니라 모든 여성들을 감시하였다. 같은 현상에 대해 남녀 차별적인 대처를 볼 수 있다.

후방의 여성들

전쟁 초기 영국에 소위 “카키열^{Khaki fever}”이 유행을 하였다⁷. “카키열”이란 여성들이 인근에 주둔한 군부대의 병사들이 제복을 입고 나타나면 그 모습에 성적으로 흥분하여 시시덕거리거나 노골적이고 공격적인 놀림, 나아가 공개적으로 성행위를 유도하는 것 같은 위험한 행동을 하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다른 나라에서도 전쟁 동안 후방의 여성들은 “성자유”를 즐겼다. 남자와 시시덕거리리는 도시 여자들을 “Flirt 1914”이라 불렀다. 그들은 창녀처럼 행동하였고 성병을 옮겼고, 그리고 사생아, 즉 “war babies”를 낳았다. 각국 정부는 경찰을 동원해, 이웃 탐문으로 어떤 여성이 남편과 조국을 배신하는지 조사하였다. 신문들은 남자들이 전선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 쾌락을 추구하는 여자에 대해 분노를 표시했다. 전반적으로 남녀관계가 적대적이 되어 갔다. 이런 후방의 여성들의 행태는, 과거 성적 순결과 얽매음이 여성에 대한 존경의 근원이라는 이전의 성도덕에 대해 도전하는 현상이었다. 즉 여성의 젠더 행동과 도덕적 질서에 세대변화가 나타나고 있었다.

점령군의 성폭력

점령지에서는 적국 병사에 의한 강간이 국가적 문제가 되었다. 정부는 피해자의 정신적 트라우마에 관심을 갖기보다, 강간과 폭력 사건을 적국(주로 독일)에 대한 증오를 부추기는데 이용하였다. 그 강간 사건 소식은 전쟁을 더욱 정당화하고, 모욕을 느낀 남편들이 더욱 공격적으로 싸우도록 만들었으며, 조국과 여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남자들을 군대에 들어오도록 동기 부여하는 어젠다로 이용되었다.

젠더 정체성과 동성애 문제

전선에서 어떤 병사는 강철 같은 정신의, 성적으로 순결한, 그리고 감정적으로 잘 훈련된 전사로서, 위로부터 주어진 “남성성” 이미지를 실현하려고 애쓰기도 했지만, 대다수는 자신의 감정적 및 성적 욕망을 희생하기를 거부했다.

군대 내 동성애는 은밀하였는지는 몰라도 엄격히 통제되었다. 그러나 참호라는 왜곡되고 트라우마가 많은 상황에서 어떤 병사들은 자신의 젠더를 혼동하는 환상을 가졌고, 남자들끼리의 친밀을 “전우애”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는 진정한 젠더 내지 성지남의 변화가 아니라 전투에 의한 스트레스의 일시적 해소^{relief}를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게이 병사들은 군대 생활은 자신의 동성애가 용납되는 이상적 공간이라 생각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사회로 귀환한 게이 병사들은 잘 단련된 남성과이적인 이상적 전사로서 “지배자”라는 이미지를 유지하려 했다. 이성애자 남자 군인들은 여자들에게 분노를 느꼈듯이, 게이 제대 군인들은 여성화된 동성애자들에 대해 분노하였다.

7) Angela Woollacott, 'Khaki Fever' and Its Control: Gender, Class, Age and Sexual Morality on the British Homefront in the First World War, *Journal of Contemporary History* Vol. 29, No. 2 (Apr., 1994), pp. 325-347. <https://www.jstor.org/stable/260893>

여성 해방

남자들이 징집되는 바람에 모든 분야에서 남자가 모자라 여자들이 남자 일을 하기 시작하였다. 여성들은 더 강해지고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서 독립적이 되어 갔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자 여자들은 옛날 상태로 돌아갔다.

여성 참정권 운동은 전쟁 전부터 영국과 미국에서 있었다. 전쟁 동안 많은 참정권 운동 여성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남자 대신 남자들이 하던 일을 함으로 전쟁에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어떤 여성들은 신념을 가지고 계속 불복종함으로써 감옥에 갔다. 전쟁 후, 여성들의 활동의 그 중요성을 인정받아 여성의 지위도 올라갔고 정치적 힘도 얻어, 전후에 드디어 투표권을 얻었다.

여성들은 의상(패션)에서 자유를 누렸다. 당시 여성들은 공장에서 일하기 위해 단순한 디자인의 옷차림을 하였는데, 이는 하나의 패션으로 유행하게 되었다. 이는 “플래퍼 스타일”로 불리었다⁸. 이 스타일은 짧은 치마, 짙은 화장, 단발머리가 특징이다. 이들은 재즈와 댄스를 즐겼다. 이는 여성들이 전통적 여성적 코드에서 벗어나 자신들을 재정의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이다.

▼ flapper style(플래퍼 스타일), <https://www.myinterestingfacts.com/flapper-facts/>



8) flapper style, flapper "gar onne", "little boy" look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후라빠"라는 말로 소개되었다.

1차 성 혁명

역사기들은 성혁명을 1차와 2차로 구분한다. 1차 성혁명⁹은 1차 세계대전 후 1920년대에 있었다. (한편 2차 성혁명은 2차 세계대전 후 1960년대의 성혁명이다) 성윤리 훼손은 전쟁과 크게 관련되어 있는 것 같다. 1차 세계대전 전까지 억압되고 누적되어오던 성적 욕망이 전쟁을 통해 무분별하게 분출되었다고 보여진다.

1차 세계대전은 유럽에 다양한 감정반응과 의견들을 생산했다. 그리하여 1920년대¹⁰에 미국과 서유럽에서 경제가 발전하였고, 문화, 예술이 역동적으로 어울리며 발달하였다. 근대가 도래했으며, 전통이 파괴되었고, 새로움과 신기함이 넘쳐났고, 현대 기술 발달로 모든 것이 다 가능해 보였다. 경제적 발전과 더불어, 자동차, 비행, 전화, 영화, 라디오 등 기술의 발전이 있었다. 건축과 디자인, 문학¹¹, 영화, 미술, 음악, 철학, 심리학 등에서 새로운 문화가 번성하였다. 전통을 깬 “근대(modernity)”와 관련된 새롭고 신기한 것들과 재즈, 댄스 같은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인기리에 유행하였다. 그러나 그 문화는 흔히 퇴폐적이고 도덕적으로 파괴적이었다고 비판된다. 비교적(秘敎的) 종교와 점성학과 오컬트도 유행하였다. 서구의 대도시들, 즉 베를린, 시카고, 런던, 뉴욕, LA, 파리 등지는 문화적으로 위험한 경지에 들어가 있었다. 이 시대를 미국에서는 소위 “the Roaring Twenties”(진탕 마시며 노는 1920년대라는 의미) 또는 “the Jazz Age”라 했고¹², 독일에서는 “Golden Twenties”라 했고, 프랑스에서는 “the “années folles”(“Crazy Years”)라 했다. 이 시대의 베를린을 히틀러는 “악의 항구”라 비판하였다. 이 호황은 1929년 경제공황으로 막을 내렸다.

▼1920년대 베를린의 카바레

출처: LOST BERLIN: BABYLON & BOOGIE AT THE BRANDENBURG GATE

Posted on September 8, 2010 by Dave

<http://bizarrocomic.blogspot.com/2009/01/three-clowns-in-fountain.html>



9) 1차 성혁명에 대해서도 두 가지 의견이 있다. 하나는 앞서 말한 대로 1870-1910년간 빅토리아 시대의 도덕성이 무너지는 것을 성혁명으로 보는 견해이다. 두 번째 의견은 1920년대에 성혁명이 있었다는 것이다.

10) 1차 세계대전이 끝난 1918년부터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1939년 사이를 Interwar period라 한다. 이 짧은 시대에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났다. 석유산업 등 산업이 번창하여 중산층 사회는 부요해졌다. 자동차, 전기, 라디오, 전화, 영화, 비행기 등이 발전하였다. 소비재 요구가 가속화되었다. 자유와 예술이 꽃피었다. 아르 데코 art deco가 정점을 이루었다.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큰 변혁이 일어났다. 영화배우, 프로 운동선수가 유명인사가 되었다. 그리고 여성들이 투표권을 획득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어 인플레이션이 오고 급기야 1929년 월 스트리트로부터 대공황이 닥쳐왔다. 정치적으로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공산주의 혁명이 러시아에서 시작하여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서구 제국의 식민지들은 독립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대는 독일과 이탈리아의 파시즘이 시작되면서 끝났다.

1929년 “Sexual revolution”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되었다. Hurler & White의 책 『Is Sex Necessary?』의 한 챕터 제목이 “The Sexual Revolution: Being a Rather Complete Survey of the Entire Sexual Scene”이었다.

11) F. Scott Fitzgerald, Ernest Hemingway 등이 Roaring Twenties의 대표적 작가들이다.

12) 미국 소설가 F. Scott Fitzgerald의 1922년 단편모음집 『Tales of the Jazz Age』에서 이 용어가 사용되었다. 이 시대의 모습은 리자 미넬리 주연 영화 『카바레』에 잘 묘사되고 있다.

섹스, 재즈 그리고 댄스

1차 세계대전이 성문화를 혁명적으로 바꾸었다¹³. 1차 성혁명은 섹스, 재즈, 댄스로 특징지어진다. 이들은 카바레를 중심으로 나타났다.

젊은 여성들은 이미 전쟁 중에 공장에서 일하며 전에 없던 자유를 누렸고, 어떻게 하면 구시대의 규율에 저항하며 인생을 즐길까 하는 것을 배우고 있었다. 그들은 남자들, 특히 젊은 남자들이 귀하게 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전처럼 암전하게 기다리고 있어봐야 남자를 사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다. 오래 기다리는 사이 삶을 즐겨야 했다. 우선 플래퍼들이 출현하였다. 그들, 즉 “해방된 젊은 여성”들은 술 마시고 담배 피우며, 혼자 외출하고, 카바레에서 재즈 음악에 춤을 추었다. 춤출 때 잘 움직이기 위해 코르셋을 벗어던지고 짧은 내의에 헐렁한 겹옷을 입었다.

1차 세계대전에서 귀환한 병사들도 “잃어버린 세대^{lost generation}”로서, 1920년대 카바레의 환락문화를 즐기었다. 가부장적 모습을 버린 **평등주의적인 그러나 매력적인 이상적 남성의 모습이 제시**되었다. 대중적 인기인(영화배우, 체육인 등)이 등장하면서 이상형은 변화하였다.

특히 베를린이 유럽 환락 문화의 중심에 있었다¹⁴. 비록 당시 독일은 전후 배상 문제로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성적 환락은 번성하였다. 바, 클럽, 카바레 등이 번창하였다. 베를린에서는 이성복장도착증^{transvestism}, 동성애 등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어떤 형태의 성자유도 허용되었다. 베를린은 게이 수도였다. 동성애를 할 수 있는 장소가 100개가 넘었다. **당시 베를린의 대표적 주민은 Marlene Dietrich로서 그녀의 androgynous[양성] 패션을 베를린시가 자랑하였다.** 베를린으로부터 성자유, 음탕, 관음적 행태가 전 유럽의 도시로 파급되었다. 1920년에는 처녀막에 대한 주의를 결들인 성교에 대한 매뉴얼도 출판되었다. 성에 대한 정보나 성행위에 대한 조언도 난무하였다. 그 조언은 대체로 성을 억압하지 말고 표현하라는 것이었다. 수많은 유사한 책들이 남자 위주의 성적 조언을 하였다. 예를 들어 부인들은 남편의 건강을 위해 (에너지를 보존하도록) 섹스 동안에 열성적인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등이었다.

영국도 비슷하였다. 1920년대 “게이” 문화는 더 널리 퍼졌다. 비밀리에 50-100명 정도가 모이는 drag ball(이성복장의 무도회)이 열렸고, 수시로 경찰에게 발각되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사회는 여전히 구태적이어서 긴장이 있었고 불안정하였다. 사회 전반적으로는 아직 “permissive society(허용적 사회)”가 되지는 않았다. 보통 사람들 사이에서는 2차 세계대전 전 빅토리아 시대의 도덕 코드가 그대로 유지되었다.

▼말린 디트리히 영화 “The Blue Angel” 포스터

German film star Marlene Dietrich in 'Der blaue Engel' (1929). Photo: DPA

<https://www.thelocal.de/20171018/where-to-go-in-berlin-for-a-taste-of-the-weimar-republic>



13) Violet Fenn, Historical Sex: The Roaring Twenties flappers, sex manuals and gay liberation, Metro, 5 Jul 2017
<https://metro.co.uk/2017/07/05/historical-sex-the-roaring-twenties-flappers-sex-manuals-and-gay-liberation-6701001/>

14) Violet Fenn, Historical Sex: The Roaring Twenties flappers, sex manuals and gay liberation, 5 July, 2017.
<https://metro.co.uk/2017/07/05/historical-sex-the-roaring-twenties-flappers-sex-manuals-and-gay-liberation-6701001/?ito=cbshare?ito=cbshare>

러시아 공산주의 성 혁명

서유럽에서 1920년대에 성혁명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러시아에서는 이미 1917년 볼셰비키 혁명으로 이미 성혁명이 시작되어 있었다¹⁵.

레닌은 (당시 서구에서는 꿈도 꾸지 못할) 성 자유, 무정부주의자의 나체로 전차 탑승하기, 성당 근처 강변에 누드비치 설치하기 등을 시도하였다¹⁶. 오랜 습관을 고치기는 쉽지 않았다. 그러나 볼셰비키는 강하게 밀어붙여서 노동자 해방뿐 아니라, 여성과 동성애자도 해방시켰다. 즉 정부나 사회는 개인의 이익이 침범당하지 않는 한 성에 대해 절대적 불간섭 정책을 사용했다. 초기 볼셰비키 중, 새 가족질서 내지 성혁명에 대한 핵심적 선전선동가로서 **Alexandra Kollontai**가 있다. **그녀** 이론은 “a glass of water”였다, 사랑, 즉 섹스는 “물 한 잔”을 요청하듯 쉽게 입수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혁명으로 러시아 정교회의 성 통제는 사라졌다. 남녀는 법 아래 평등해졌다. 여자가 요구하면 언제든 이혼이 가능해졌다. 낙태도 합법화되었다. 동성애, 항문성교 기타 성만족의 형태 모두가 자연스런 성교로 취급되었다. 동성애가 변성하였다. 매춘도 범죄가 아니게 되었다. 이런 급진적 변화는 사상 유례가 없는 것이었다¹⁷.

다음 호에 이어서 계속됩니다.



15) Georgy Manaev, Daniel Challyan, How sexual revolution exploded (and imploded) across 1920s Russia, HISTORY, May 2018. <https://www.rbth.com/history/328265-russian-sexual-revolution>

16) Georgy Manaev, Daniel Challyan, How sexual revolution exploded (and imploded) across 1920s Russia, HISTORY, May 2018. <https://www.rbth.com/history/328265-russian-sexual-revolution>

17) 그러나 이후 러시아 혁명은 차르 지지자들과의 내전으로 힘들어졌다. 외국들도 사회주의 사회를 파괴하려 하였다. 볼셰비키는 견디지 못해 “새 경제정책”을 채택하고, 자본주의를 부분적으로 도입하였다. 그러나 살기는 더 어려워졌다. 다시 매춘이 성행하기 시작하였다. 볼셰비키는 사람들이 가족의 굴레에서 해방되기를 원했으나, 결국 다수에게 가족이 유일한 선택이 되었다. 서서히 옛 방식이 되살아났다. 조셉 스탈린(1878~1953년)이 1924년 권력을 잡았다. 건축과 예술철학이 도입되었다. 다시 일부일처제적 사랑, 깊은 사랑에 근거한 성교 등 보수적 성 가치관이 조심스럽게 제시되기 시작하였다. 여성운동은 침체되었고, 전통적 가부장적 사회로 회귀하였다. 여자들은 부업으로 돌아가 노동자 남편을 위해 요리를 하였다. Kollontai의 “신여성” 운동은 10여년 만에 실패로 돌아갔다. 가족이 다시 사회의 단위가 되었다. 1934년 결국 동성애도 불법화되었고, 주요 도시에서 동성애자의 대대적인 검거가 있었다. 동성애자들은 8년까지 징역형을 받았다. 동성애자들은 다시 자신을 감추었고, 자살이 증가하였다. 1936년 낙태도 금지되었다.